

축산 뉴스

가축질병예찰 중앙협의회 개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기로 결의-

제 9 차 가축질병예찰 중앙협의회가 지난 5월 27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농진청 관계자, 각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사료협회, 각도위생시험소 관계관,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축질병예찰 중앙협의회에서는 각종 가축질병의 예찰현황을 소개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 또는 조기 발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돼지콜레라, 전염성위장염, 닭 전염성후두기관염, 뉴캐슬병 등에 대한 발생 상황, 예방접종 실태등이 검토되고 각종 예방 약의 보관 및 유통, 공급현황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예방접종실태에서는 스킨콜레라 예방접종실태는 모든의 경우 양호하나 이유자돈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 스포유전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 계속확대 스페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접종 매우 미흡 스뉴캐슬, 전염성후두기관염에 대한 예방접종 양호 등에 대한 예찰현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정기협의회를 개최기로 결정하고 모든 자료를 개최 3일 전에 마감 정리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최근 닭 질병 발생현황을 본회 편집국으로 연락하여 주기 바란다.

펠릿사료 세미나 개최

-코리아나호텔 22층에서-



△코리아나호텔에서의 세미나광경

<주>태영교역(대표 권 경섭)은 지난 5월 10일 관련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나호텔 22층 그로리아홀에서 펠릿사료에 대한 세미나를 미국 California Pellet Mill Co와 일본 Sanyo Trading Co. 협찬으로 개최하였다.

권경섭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발표에는 브라이언 베에트(해외영업 기술담당이사)씨의 펠릿사료에 관한 발표가 박 홍석교수(전북대)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농축산물 14억달러 수입추천

- 육우 등 생축도입 늘어나 -

농수산부는 올해안에 양곡 9억 8천 3백 86만 달러, 생축 8천 76만 5천 달러, 축산물 1억 5천 1백 53만 달러, 등 모두 14억 1천 9백 4만 6천 달러에 상당하는 농축산물을 수입추천해 줄 계획으로 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0%가 증가한 것으로, 이 중 특히 생축도입 추천액이 배가되었다.

한편 3월말까지의 추천실적은 생축 2천 58만 7천 달러, 축산물 6천 4백 89만 3천 달러 등 모두 3억 8천 2백 63만 3천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 장기저장법 개발에 성공

-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연구소

특수처리 필름 포장 -

닭고기를 25일동안 위생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어촌개발공사(대표 김 태경) 식품연구소는 지난 5월 28일 닭고기를 특수처리 PE/P 적층 필름으로 포장해 4°C에서 25일간 저장할 수 있는 기법개발에 성공, 전국 대규모 도계장에 보급키로 했다.

그동안 닭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보다 저장성이 약해 저온보관의 경우에도 2~4일까지밖에 선도가 유지되지 않아 유통상의 어려움이 컸는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새로운 저장기법이 실용화됨에 따라 위생도 향상 및 수급안정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연구소는 이와 함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포장, 16일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했다.

미·소 6월중 곡물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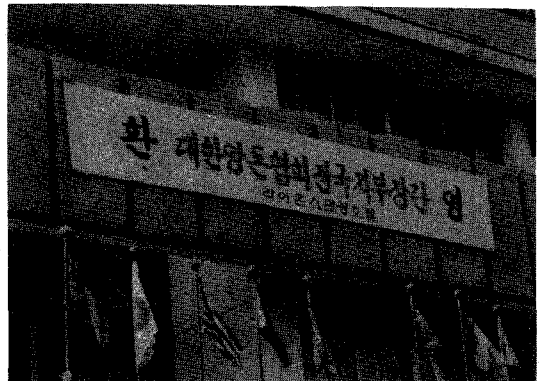
미국과 소련은 오는 6월 1일부터 이틀간 런던에서 새로운 장기곡물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고 5월 27일 미국정부가 발표했다.

「다니엘 앰스투츠」농무장관이 미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9월말로 끝나는 현행곡물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내용이 논의되는데, 관계자들은 새 협정의 유효기간 및 미국의 대소 곡물판매량 등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현행 협정은 소련이 미국산 밀과 옥수수를 최소한 연 6백만톤을 구매토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소련의 구매 의무량을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 임원 지부장회의

- 제주 KAL호텔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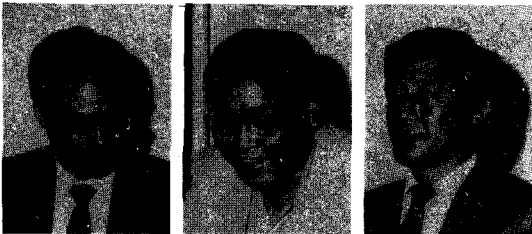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회장 전 동용)는 지난 5월 10일부터 2박 3일동안 제주지부(지부장 김 상호) 주최로 임원 및 전국지부장 회의를 본 회회장 및 임원, 전국지부장, 제주도 식산국장, 축정과장 등 내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KAL호텔에서 열었다.

전 동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3~4년후 돼지 사육두수가 600만두로 증가될 전망이며 원가절감에 노력, 앞으로 닥쳐올 돈육수출 및 수입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인규 도식산국장은 양돈협회 전국임원 및 지부장단 회의가 제주에서 열리게 될 것을 환영하며 도내 양돈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제주도 소개 영화가 20분 동안 방영되었다.

회의는 2박3일 동안 성황리에 끝났다.

바이엘, 유스틴-50 세미나 개최 - 서울, 부산, 광주에서 -



(한인규 교수) (장두환 교수) (김창한 교수)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은 비육우 및 육성돈 성장촉진 항생제 유스틴-50세미나를 부산, 서울,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5월 10일 부산 해운대 비치호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 14일 전남 광주 학생회관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강사로 한인규교수(서울대), 장두환교수(서울대), 김창한교수(전국대), 工藤英彦(일본 科研化學), 이방한 교수(전남대), 나진수교수(전남대), 김병기차장(바이엘 화학) 등이 초빙되었다.

김길원사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동물약품 수입입변도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뜻」을 밝히고 금년도에 가축의



학연구소를 창립해 국내 석학들을 초빙, 국위선양을 계획중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닭의 콕시들킬로 및 성장촉진제로 알려진 살리노마이신계제 유스틴-50이 국내시험을 통해 비육우, 육성돈에도 사료효율개선으로 증체율 향상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소에 있어서 고창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스틴-50은 살리노마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사료첨가용 항생제로 1968년 일본 科研化學 중앙연구소가 방선균의 일종인 Streptomyces albus 배양액 중에서 발견해낸 것으로 국내에서는 닭의 콕시들행 및 치료용 성장촉진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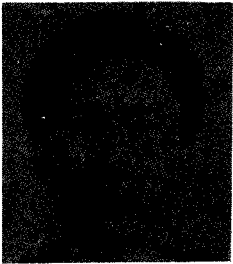
하곡수매가격 4~6% 인상 예상

민정당은 올해 보리수매가격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4~6% 선에서 인상하기로 하고, 희망가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12일 「농민들이 보리값 인상을보다는 보리의 전량수매 여부에 관심이 더 크다」고 말하고 민정당은 하곡전량의 수매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성미생물 창립18주년 기념식 개최

- 5월 14일, 동사 부곡공장에서 -



(조성용 사장)

〈주〉대성미생물(대표 조성용)은 동사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관련 거래처, 전직사원, 동사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14일(토) 동사 부곡공장 운동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관련업체, 기관 내외빈 다수가 임석한 이날 창립기념행사는 기념식, 축훈제, 친선체육대회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성용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성미생물 창립 18주년 기념식에는 관련업체 기관내외빈 다수가 참석했다.

이날 참가한 내외인사들은 공장시찰을 마치고 동사 전직원과 함께 어울려 친선배구대회를 통해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소에 대한 가축공제로 5% 인상

축협은 소에 대한 일반가축공제료를 50% 인상하고 이에 대한 부족재원을 가축인공수정 시술료와 정액대 인상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소에 대한 가축공제료가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른 것인데, 6개월에서 1세 미만은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1세에서 3세 미만은 1백50만원에서 2백20만원, 3세 이상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50%로 인상되게 된다.

한편 축종별 인상된 시술료와 정액대는 다음과 같다.

△한우 : 시술료 7천원, 정액대 1천원

△육우·교잡우 : 시술료 7천원, 정액대 1천원

△유우(검정우) : 시술료 1만원, 정액대 2천원

△유우(등록우) : 시술료 1만1천원, 정액대 3천원

△돼지 : 시술료 7천원, 검정대 1천원

호주산양고기 한국에 시험선적

최근 한국과 호주 양국 간에 호주산양고기를 향후 수개월간 한국에 시험선적키로 합의함에 따라, 호주 고기수출업자들은 앞으로 호주산양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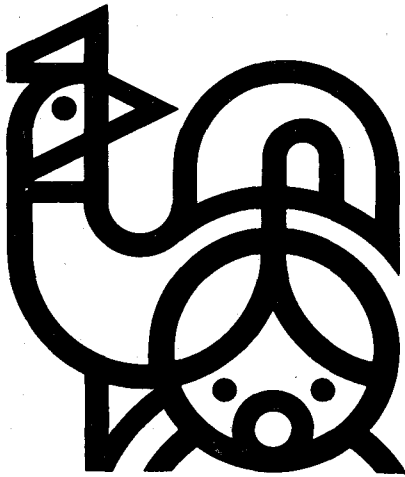
호주식육가축공사(AMLC)의 론·조단 전무이사는 지난주 한국 농수산부관리들과의 회담에서 호주산양고기 시험선적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AMLC대변인은 한국이 세번째로 큰 호주산양고기 수출시장인 동시에 양고기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는 양고기가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양계 양돈쇼 개최 -서독 하노바시에서-

서독 하노바시에서는 83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양계 및 양돈쇼가 개최된다. 하노바 쇼는 매년 1월말 개최되는 미국 조지아주 아트란타의 가금박람회와 함께 세계최대규모로 양계, 양돈시설 기구, 종축, 생산물, 마케팅관련 분야 등 관련산업 전분야가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양계·양돈업자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참석희망자는 본회편집부로 (752-6917) 연락하기 바람.



Huhn & Schwein '83 동방화학 세미나

-맘모스호텔에서 1박 2일-

동방화학(대표 이자모)은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동물약품상사 대표와 영업담당자 등 관련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모스호텔 3층 무궁화 홀에서 1박 2일간에 걸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김철중 수의사(동사 기획부 대리)의 유우의 번식장애 및 유방염 대책에 대해

서 발표가 있었고, 권영방 연구관(가축위생연구소)의 송아지 폐렴 및 설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단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참석자들은 레크리에이션을 갖고 21일 일정을 마쳤다.

다음날(22일)에는 오경록 수의사(천호부화장상무)의 양계의 주요 질병 및 대책(ILT와 호흡기 질환)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닭의 일생중 가장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는 21일령에서 60일령과 100일령 전후, 그리고 160일령에서 250일령사이가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적절한 투약과 예방이 요구되며 영양공급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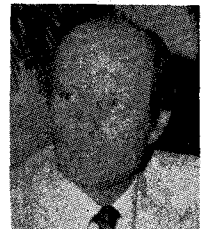
또한 크리닝은 세균을 줄이고 발병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며 스트레스를 막고 병원체 확산을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예재길 수의사(제일축산 과장)의 여름철 양돈 질병대책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돼지의 질병관리 세미나 -한국 화이자 5월 16일, 18일-



(류니일 교수)



(권계기술담당)

〈주〉한국화이자(대표 김중배)는 지난 5월 16일 부산 크라운호텔과 5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22층 덕수홀)에서 전국 양돈양축가와 관련업계 등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질병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농축부 홍영선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한국화이자 돼지질병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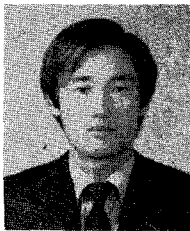
는 간단한 의식행사와 강사소개, 직원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시작된 발표에는 유니일교수(포드대학)의 최근 미국에서 문제되는 중요한 돼지의 질병에 대해서 김봉환박사(경상대, 사료학)의 해설로 발표되었고, 콘웨(화이자 아시아 기술담당)씨의 메카독스 프러스와 기생충 감염 실태에는 박홍석박사(전북대, 영양학)의 해설로 발표하고 국내 사양 시험성적 발표도 있었다.

또한 유니일교수와 콘웨씨의 돼지질병 및 메카독스 프러스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부화율향상방안 세미나 개최

- 계사구조, 집란방법, 부화기술 등에 관하여 -



(신홍중 사장)

고창양계(대표 신홍중)는 지난 5월 13일 내장산 관광호텔에서 관련 부화장대표 및 부화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화율향상을 위

한 관리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세이버농장에서 35년간 부화업무단을 담당해온 존스(Ron Jones)씨가 전세계 기술지도 순회방문계획의 일환으로 참가하였으며, 통역은 최정옥(안양 가축위생연구소) 박사가 맡았다.

세미나에서 존스씨는 세이버 산란계가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평균 60% 이상의 산란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개량된 세이버 산란계의 주요관리지침과 실용적인 계사구조, 효율적인 집란방법, 종란소득, 보관요령, 과학적 부화기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하게 경청하였으며, 특히 최신 부화기술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요네즈용 계란도 부가가치세의 대상

〈문〉 마요네즈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원료로 달걀중 달걀노른자위만을 사용하고 껍질과 달걀노른자위를 분리한 달걀 흰자위를 전혀 조미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냉동하여 일정 단위로 비닐포장 박스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달걀흰자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답〉 달걀흰자위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달걀의 부수적 재화로서 생각될 수도 있으나 마요네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달걀흰자위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농촌 가계수지 악화돼

- 종자, 노임보다 농산물

출하가격 상승율 저조 -

농민이 농사를 짓거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의 값이 내다 파는 농산물 값보다 더 많이 올라 농가의 가계수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곡물·과실·축산물 등 농가에서 내다 파는 물건값은 작년 같은 때에 비해 13.1% 오른데 비해 식료품·옷·종자·농촌노임 등 농가에서 사 쓰는 물건값은 15.3%나 올라 농가판매 가격이 농가구입가격의 9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수지상태를 반영해주는 이 농가교역조건이 금년 2월 95.1%로 나타난 것은 작년 96.9%에도 밀도는 것일뿐 아니라 73년 101.0% 74년 100.5%, 75년 100.0%에 비하면 매우 악화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농가판매가격은 작년과 비교할 때 가축(35.5%)우유·계란(13.9%) 등 축산물이 36.9% 오른데 반해 채소(22.2%), 과실(4.4%) 등 청과물은 오히려 18.2%가 떨어져 전체적으로 판매가격지수가 13.1%가 높아졌다.

포도밭 조성, 포도주 공장 설립

- 가공업체와 단지간의

계약재배 적극 유도 -

농수산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대비해 포도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오는 92년까지 2천6백75억원을 들여 포도원 1만4천5백ha를 새로 조성하는 한편 포도주산단지에 5개 포도주공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5월 14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가공업체와 단지간의 계약재배를 적극 유도해 연간 1천4백~1천5백ha의 포도밭을 조성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과실주주조 신규면허 대상자를 △과실주단지조성에 참가한자 △대단위 과수단지 조성자 및 이와 계약재배한자 △농수산부장관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천한자 등으로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2천6백75억원은 묘목생산에 1백45억원, 포도밭 조성에 6백9억원, 포도수매(포도주용)에 1천8백15억원, 포도주 가공공장 설비에 1백6억원 등으로 나누어 지원되는데 이중 포도수매자금은 50%까지 용자되고 다른자금은 70%까지 빌려줄 방침이다.

그런데 8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포도밭 면적은 1만1천1백62ha이고, 생산량은 9만4천8백톤이며 이중 1만1천1백톤이 포도주용으로 소비됐다.

또 포도주 소비량은 75년 1천3백75kl에서 82년에는 3천7백28kl로 2.7배나 증가해 1인당 0.90l씩 마신 셈인데 2천년대에는 2l정도로 소비가 급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기계시장판도 크게 변화

- 업체간 점유율 점차로 균형 이뤄 -

지난해 7월 농기계자유판매제 실시 이후 시장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각 업체간의 점유율이 점차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품질개선, 애프터서비스 등 실수요자를 위한 봉사가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동공업 등 농기계 전문생산업체들은 지방 대리점 조직을 읍·면까지 확대하고 영농기계화 자금대여전문요원과 서비스요원을 상주시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봉사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들은 신제품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이미 고마력엔진을 단 고속 경운기를 비롯한 한국형농기계를 개발, 선보이고 있다.

한편 4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을 보면 대동공업이 56.7%, 국제종합기계 29.2%, 아세아종합기계 7.4%, 동양물산 6.7% 등으로 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개선 세미나

- 군소·도매시장 통폐합, 종합도매시장건설 -

농어촌개발공사(대표 김 태경)는 지난 5월 4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박종문농수산부장관, 김식국회농수산위원장, 이원홍한국방송공사사장 등 관계기관, 업계, 학계, 단체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소비자유통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박종문농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농수산물의 소비자유통개선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종합도매시장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대량유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존 도매시장을 개선해서 농수산물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김성훈(중앙대)교수는 「소비자유통의 당면과제」라는 제하에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요청된다고 전제하고, 도매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빈약하고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유통비용이 높으며, 특히 유사도매시장의 점유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찬길(농경연유통연구소) 실장은 「도매시장의 운영제도개선방안」에서 현 도매시장의 기능저조, 부적성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도매시장의 통폐합 및 시설의 대규모화·현대화, 농축수협 소비지공판장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안태호(인하대)교수가 「공정거래의 제

한요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남옥(한양유통)사장이 「대형소매점의 농수산물유통 및 직거래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병석(농수산부농정국)국장이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개선방향」에 관해서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대기업들, 축산에 참여

- 생활향상에 따른 소비증가 예상 -

최근들어 대기업의 축산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점차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올림픽유치 등의 영향으로 육류소비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현재 기업목장으로 삼양축산, 두산개발, 제동목장, 서광축산, 한일농업, 인송농장, 남영농산, 대원목장, 삼주개발, 매일유업, 오리온축산 등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지난 74,5년경에 시작하여 꾸준히 확장해 나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목장 가운데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곳은 제주의 제동목장으로 82년말 현재 2천6백95 두이며, 서산의 두산개발은 수정란을 이식하여 송아지를 낳게하고 한우에서 젖소를 분만시키는 등 품종개량부문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85g 이하의 종계 이외의

닭 수입자유화

정부는 83년 7월 1일부터 8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수출입기별공고를 5월 31일 발표하였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우리 업계의 큰 관심이었으나 이번에는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번에 새로 수입자유화된 305개 품목 중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원전자유화 품목 :

185g 이하의 종계 이외의 닭(※초생추), 종계는 대한양계협회 중돈은 양돈협회 추천품목이다.

△수입감시 품목 :

토끼고기(신선냉장, 냉동한것), 동물의 피, 동물의 사체(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실험동물의학 춘계세미나
세종호텔 1층 회의실에서

대한수의학회(회장 임창형)는 지난 5월 14일 83년도 춘계세미나(실험동물의학)를 천호그룹(회장 이계조)협찬으로 관련업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최희인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임창형회장의 인사말과 이계조회장(천호그룹)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 세미나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近藤恭司(名古屋대학 명예교수) : 「실험동물의 유전적 콘트롤」

통역 : 오양석(名古屋대학 박사과정)

△ 藤原公策(동경대교수) : 「실험동물 질병의 모니터링」

통역 : 이영순(서울대조교수)

△ 윤택구(원자력병원장) : 「암 연구에 있어서의 실험동물이용」

△ 최재윤(국립보건원 동물관리과장) : 「실험동물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이영순(서울대조교수) : 「독생시험과 실험동물」

△ 오경록(천호부화장 상무) : 「우리나라의 S PF가금에 관하여」

유제품 수입자유화 이번에는 빠져

- 국내 축산기반 등 여건고려 -

그동안 유제품이 독과점품목으로서 정부의 수

입자유화정책에 의해 수입이 개방될 움직임을 보였으나, 수차 협의 끝에 국내 축산기반 등 제반여건을 고려, 83년 하반기 및 84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자동 승인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축산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우리의 낙농업은 아직 유치단계에 있어 유제품 수입을 개방할 경우 농가소득원을 봉쇄하게 되어 낙농업자체를 포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 이 의견을 물가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우, 유·육우에 구제사업 실시

- 전국 42만두 대상, 5월부터 11월까지 -

축협(회장 김일로)은 5월 23일부터 전국 양축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유우, 육우 등 총 42만두를 대상으로 간질증 검진과 구제사업을 시작, 오는 11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축협은 지난해 검진결과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와 젖소 1백70만두 중 35%인 59만5천두가 간질증에 감염되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고기손실액은 5백46억원, 유량손실은 1백4억원, 소의 간폐기 손실액은 5억여원으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축협은 이미 작년년부터 간질증 검진과 구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각 시도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수의사와 가축위생시험소관계요원을 동원, 간질증 감염율이 높은 지역의 한우, 유·육우 1세 이상을 대상으로 검진·구제를 실시키로 했다.

옥수수 안정기준가

145\$로 10\$인상

농수산부는 5월 31일 농수산부고시 83-25호로 도입옥수수 C&F기준으로 톤당 가격을 6월 1일 도착 모선분부터 145\$로 대폭인상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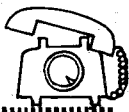
또 앞으로는 안정기준가격과 실제 구매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2개월간의 구매가격과 5\$ 이상 차이가 나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국제 옥수수가격이 하락할때 이번조치와 같이 연동제를 실시해줄 것을 양축가들이 원했었으나,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시기에 실시되게 되었다.

과거의 수동식 가격조정이 완전자동화 함으로써 2개월 후에는 다시 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료업계에서는 옥수수 이외의 값싼 곡물구매 등 원료구매의 다변화만 이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면 배합사료가격은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단신



○대한사료<주>(대표 김 상태)영업부 단합대회 개최 : 팔복할만한 판매증가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확장을 도모키위해 '83, 5, 14~15 양일간 영업부 단합대회를 전북 고창군 도솔산 선운사에서 개최. 원 용택상무, 이 재문 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등산을 통해 일체감을 과시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화성산업<주>(대표 최준열) : 전 「한국브로일러」가 상호를 「화성산업주식회사」로 개칭했다.

주소 :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사리현리 2-7
전화 : 6-8059

○제일제당(대표 이수빈) : 이천공장 제2육가공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1억 8천여만원을 들여 최신식 육가공혼합기를 새로 도입했다.

이 혼합기는 4백70kg의 원료육을 진공상태에서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커팅(cutting)과 믹싱(mixing)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용량은 6백리터이다.

한편 동사는 5월 16일 이라크에 1.3톤의 런천미트캔과 프랑크 소시지캔을 선적·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밝은 전망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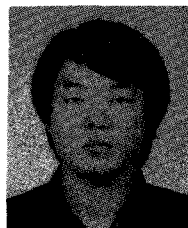
○풍년식품<주>(대표 김 우열) : 대용유 생산허가를 얻은 후 국내 최초로 「카프밀」을 개발, 시판 예정이다.

○해태산업(대표 박 건배) : 휴대하기 편한 35°짜리 나폴레옹 1백80ml, 3백60ml들이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가격은 1백80ml들이가 1천원, 3백60ml들이가 1천 8백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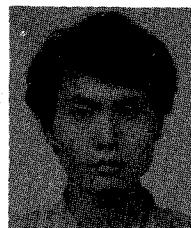
○천호부화장(대표 이 계욱) : 동사는 사세 확장으로 지난 5월 1일부로 전산실에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임 병돈(전KAIST 전산개발센터 7그룹)

이영환(전KAIST 전산개발센터 7그룹)



(임 병돈씨)



(이 영환씨)

○**불합격식품 단속** : 보사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미료, 과자류 등 1천 1백개 식품을 매월 검사하기로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불합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마야무역상사(대표 : 임동주)** : 동사 임동주 대표는 지난 4월 20일 출국 호주 동남아시아의 사료공장 및 축산관련 단체와의 상담을 마치고 5월 3일 귀국하였다.

○**과학사료(대표 신정재)** : 동사는 5월 1일부로 영업부의 박영남, 이승준 대리를 각각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국농산물 유통 연구소(소장 류달영)** 매월 첫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정기적으로 유통강좌를 실시한다.

5월 6일 개최된 18차 유통강좌는 유관기관, 유통인, 소비자, 생산자, 대학원생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강사로 김동희 교수(단국대)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농산물 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농업의 역할과 성장, 수입자유화의 개편과 현실, 만약 수입자유화가 단행된다면 국내공급 기반의 축소로 식량안보의 후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나화학(대표 임정수)**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전화를 증설하였다.

전화 : 245 - 2599

○**대성미생물(대표 조성용)** : 지난 4월 18일부로 사세확장과 영업활동 신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승진발령.

△ 기획부 과장대리 : 이원준(전 영업부계장)

△ 영업부 과장대리 : 박용환(전 경북주재 영업계장)

△ 상임고문 : 강병직 박사

○**경북수의사회(회장 탁영빈)** : 지난 4월 23일 경북지역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수의사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상동 348-2

경북 수의사회관

전화 : 762 - 4455

○**경수축산(대표 김재성)** : 영업의 신장과 사세확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상동 3482(경북수의사회관 1층)

전화 : 762 - 4455, 3120

○**천호기계(대표 신현교)** : 지난 5월 1일 이천공장(대지 3,000평, 전평 700평)의 가동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생산품목은 축사환기시설, 축사건설, 부화건설, 부화기 제작 설치 등이다.

또한 동사는 국내 도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동사 사업부 김동엽 과장이 호주로 5월 25일부터 4주간 연수교육을 위해 출국하였다.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빌딩 320호

전화 : 265 - 6883~4, 269 - 6885

공장주소 :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고담리 산 126

전화 : (이천) 5776

○**금광농원(대표 김용수)** : 지난 4월 1일 방역담당 기사에 배남일(제일중축 방역과) 씨를 특채하였다.

○**풍년산업(대표 김봉춘)** : 지난 5월 15일부로 사세 확장과 영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의정부 영업소를 개설하였다.

전화 : 2 - 3037, 3 - 1919(주공아파트 앞)

○**부산가축약품(대표 한수신)** : 동사는 지난 5월 1일부로 사세의 확장과 영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황석철(연암 축산전문대) 씨를 특채하였다.

○현대약품<주> (대표이사 진수창) : 영국ICI가 개발하여 전 세계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초광범위 동물용 강력구충제인 「닐잔」을 독점제로 판매하게 됨을 계기로 동물약품부(부장 이대용)를 신설하고 영업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두산곡산(대표 이채언) : 사료영업부에서는 지난 5월 6일 남산에 있는동보성에서 각 지역 대리점주와 영업부사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를 초빙하여 세무강좌를 실시하였다.

강행군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친 표정없이 성의 가득 하였다. 각 지역 대리점주와 지역 담당사원의 팀별 노래자랑이 한창일때는 그 사기충천으로 남산타워가 진동했을 정도였다.

한편 동사는 주문용사료를 고객에게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위하여 전용전화선을 운영한다(전화)635-0051

○<주>삼화 수입약품(대표 장병표) : 지난 3월 21일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병섭(연암축산전문대)씨를 특채 하였다.

○경주양축사(대표 김하술) : 지난 5월 16일 영업의 활성화와 사세확장으로 이지열(연암축산전문대)씨를 특채하였다.

○고창양계(대표 신희종) :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 이전일시 : 83년 5월 23일
- 이전주소 : 강남구 서초동 1077-10
- 전 화 : 전과 동 (583-2550, 7076)

한편 경기지역 영업업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 사원을 특채했다.

이종근(전 서원산업) : 서울사무소 근무

○제천축협(조합장 장영식) : 제천시 화산동에 총 공사비 9천7백25만원을 들여 새 청사를 마련, 8월 1일부터 여신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 사세확장과 생산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생산전담 직원을 5월 1일부로 채용했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최원환(진주 농전 축산과졸)
- 김이암(순천농전 축산과졸)
- 안수현(")
- 신정식(")
- 이강희(상지실전 축산과졸)

○레토르트식품 삼계탕 시판 : 제일특산(대표 신승백)은 전통음식을 레토르트 식품화한 삼계탕을 6월 중에 시판할 예정이다.

이 삼계탕은 다른 것과 같이 끓는 물에 3분 정도 넣었다가 내용물을 꺼내 먹으면 되는데, 인삼, 대추, 밤 이외에 뼈를 추려낸 닭고기를 넣은 점이 특징이다.

한편 이 식품의 시판예정가격은 300g 한 봉지에 2천원선인데, 제일특산은 작년말 이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대만 등지의 수출에 노력해 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유윤수) : 미국 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대용유 9톤을 도입, 조합원 및 각 지역 낙농조합에 분배할 계획이다.

이번 대용유 도입은 미낙농협동조합이 무상으로 기증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서울우유조합이 수송비만을 부담하고 들어왔다.

○한국계우회 임원 개선 : 동계우회는 5월 31일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강기환씨를 선출했다.

야날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강기환
- 부회장 : 최명훈, 이문빈
- 총 무 : 이종선

○**한양동물약품(대표 윤충걸)** : 수입동물 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개업했다.

- 개업일자 : 83년 4월 16일
- 주 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267-1 경일빌딩202호(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 은혜식장건물)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99
- 전 화 : 389-6080, 388-1020(야)
- 판매품목 : 대동물영양제 - 비오카타린
독일강력소화제 - 디스렙시
복합항생제 - 클룩사렌프라스
식용 영구자석 - 마그네트

○**두산산업<주>(대표 박용오)** : 본사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했다.

- 이전일자 : 83년 5월 30일
- 신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두산빌딩 19, 20층(광화문사서함 280)
- 신 전 화 : 754-6161, 6351

한편 동사는 KFC(미국 캔터키 후라이드치킨사)와 기술계휴, 본격적인 외식산업계에 진출했다.

○**미 폴란드에 잉여농산물 제공** : 미국은 폴란드의 극빈자들을 위해 근 4백만파운드(약 1백80만 kg)의 정부소유 낙농생산물과 잉여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미농무성이 발표했다.

○**농수산물 취급자에 산업재해보험 혜택** : 농수산물 취급근로자들도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집하장 등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1백 3개소에 7천 3백명이 신규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산업사(대표 윤 용구)** : 조립식 파이프제사 전문시공업체인 동사는 5월 20일부터 여러 종별의 평사용 모이통의 장점을 집약 새로운 모형으로 특수금형을 제작하여 이상적인 모이통을 시판중에 있다.

신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두껍고 파손율이 적으며 △테가 높고 상하 조정되어 사료허실 방지에 효과가 있고 △통이 미끄럽고 약간 경사져 사료가 잘 흘러나오며 △외형이 깨끗하고 보기 좋으며 △모이통소와 물통소는 어린병아리 급이 급수에 알맞다.

○**마니육종(대표 김 영환)** : 동사 제 9차 마니 친목회가 5월 27일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지역 12개부회장 대표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업체소식
- 서울시 일원 도계유통 3개월의 실태
- EDS 감보로백신의 접종효과 시험결과 발표 및 토의
- 양계산업 추세동향 토의
- 기술정보(환기 시스템 등)

○**<주>신일화학(대표 홍 완표) 사무실 이전** : 동물약품제조회사인 동사는 영업신장과 사세확장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아래와 같이 이전하는 한편, 박재길 상무이사를 영입했다.

이전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1-5

이전일자 : 83년 5월 16일

전 화 : 324-0816

<인 사>

상무이사 : 박재길(전 대성미생물영업이사)

○**한국낙농비육협회(회장 황 영구)** : 동 협회는 업무의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해 업무부에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이 용구(충남대 축산과졸)